

News / Issue

- 정부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음
-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산업재편을 강조
- 이르면 다음 주, 5개월 만에 열리는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
- 적자가 심각한 조선업은 빅3 조선사 간 사업 통폐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
- 플랜트가 강한 회사 쪽으로 다른 회사의 플랜트 분야를 몰아주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

Implication

- 빅3 조선소의 사업 통폐합이 진행되면 경쟁 완화될 전망
- 경쟁 완화되면 가격 결정력 생길 것으로 기대
- 특히 해양 플랜트의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적자 산업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을 전망

Call

- 1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화력 발전 부문을 분리하여 통합하고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한 바 있음
- 2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IHI가 항공기엔진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바 있음
- 3 일본 1위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은 1조여 원의 자금을 들여 4위 닛신제강을 인수하여 일본은 3사 체제로 재편
- 4 국내 조선3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루머가 있었음
- 5 만약 해양플랜트 통폐합이라면 각 사의 해양 사업부를 분할(예: 소규모분할)하여 통합하고 신설법인을 설립가능
- 6 한편 원샷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
- 7 원샷법을 이용한 구조조정 하반기 본격화 예상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양형모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5% 9.5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5. 4. 1 ~ 2016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